

힝클리 회장, 수술에서 회복

브리트리니 칼포드, 교회 잡지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그의 95번째 생일 축하 모임 중에 청중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96년 동안의 삶에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대장에서 암에 걸린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그는 몇 주 안에 회복될 것처럼 보였으며, 이번 호리아호나가 인쇄 준비에 들어가고 있을 때 즈음에는 천이백만 이상의 교회 회원들을 인도하는 자신의 바

쁜 일정이 재개되기를 고대했다.

1995년에 교회의 제 15대 회장으로 부름 받았을 때, 힝클리 회장은 기자들에게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픈 자녀와 함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70년 동안 전임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 동안 선지자는 늘 건강하고 활동적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정기 건강 진단을 받는 동안 그의 대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LDS 병원에서 수술 일정이 잡혔다. 종양은 2006년 1월 24일 복각경 수술, 즉 의사가 절개의 크기를 작게 하고 매우 작은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하는 수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다. 힝클리 회장은 일주일 후 퇴원했다.

예상대로 그가 없는 기간 동안 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이 그의 업무를 처리했다.

교회는 힝클리 회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많은 회원들로부터 쾌유를 비는 따뜻한 인사를 받았다. “힝클리 회장은 회복 기간 동안 교회 회원들이 보여 준 넘치는 사랑과 관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그의 측근 중 한 사람이 전했다.

그는 CBS의 저명한 뉴스 기자이며 “60분”(60

Minutes)의 진행자인 마이크 윌리스로부터 꽤자를 비는 인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10년 전 당시 노련한 저널리스트였던 윌리스 씨가 힝클리 회장에 관한 인물 소개를 썼을 때 만났는데, 윌리스는 후에 그 만남이 그의 가장 잊지 못할 경험들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윌리스 씨는 힝클리 회장의 수술 소식을 듣고, “존경, 사랑, 우정, 그리고 찬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부디 빨리 나오세요.”라고 말했다.

건강한 삶을 살아온 것 외에도, 힝클리 회장은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여행한 회장으로 교회에서 알려져 왔다. 지난 가을만 해도 그는 13일 동안 전세계 10개 도시를 여행했다.

수술 전 마지막으로 그가 교회 전체에 모습을 보인 것은 2005년 12월 23일이었다. 그는 버몬트 주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모임에서 위성 중계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했다.

힝클리 회장은 거의 일 년 전인 2005년 6월 23일에 2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95번째 생일 축하 모임을 가졌다. 96세까지 살았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1873~1970년)이 교회에서 가장 장수한 회장이었다.

힝클리 회장의 아버지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 형제는 94세까지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암과 투병했으나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그가 청소년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

힝클리 회장은 1995년 3월 12일 교회를 인도하도록 부름 받기에 앞서 20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14년 동안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다. 당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그의 활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힝클리 회장은 84세 된 분들 가운데서 가장 젊은 분으로 기억된

다. 활력에 넘치는 발걸음과 전혀 막힘 없는 낙천적인 정신과 밤 11시, 12까지 힘든 일들을 수행해 내는, 식을 줄 모르는 일에 대한 열정을 보면 누구든 그를 40대 초반 정도로 볼 것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행동도 젊

은이 못지 않게 힘차며, 또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들을 사랑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굳세고 용감하게 서 계십니다”, 성도의 빛, 특별 부록, 1995년 6월, 2~4쪽) ■

도전에 감사하는 회원들

2005년의 마지막 몇 주 동안,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선교부의 두 자매 선교사들은 선교부 내의 회원들에게 귀에 익은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그 당시 세계 어느 곳에 있던 교회 회원들에게와 닿는 질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몰몬경 읽기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라는 것이었다.

당시 교회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몰몬경을 읽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안타나나리보의 많은 회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연말까지 몰몬경을 읽으라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도전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브리트리니 졸겐슨 자매 선교사와 캐리 쇼우 자매 선교사가 나는 마다가스카르에서의 이러한 성공에 대한 보고는 힝클리 회장의 인도와 지시에 대한 뜨거운 감사 표시의 하나이다.

그러한 권유가 리아호나와 엔사인 잡지 2005년 8월호의 제일회장단 메시지에 발표되었을 때, 힝클리 회장은 이전에



제일회장단의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 전 세계의 회원들이 몰몬경을 읽고 있다. 이 책의 전체 또는 일부를 100개 이상의 언어로 읽을 수 있다.

몇 번 읽었는지에 상관없이 연말까지 몰몬경을 다 읽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영이 더해질 것이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결심이 강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계시다는 실재성에 대한 더 강한 간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5년을 마치면서, 졸젠슨 자매 선교사와 쇼우 자매 선교사는 이러한 약속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에서 성취된 것을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본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교부 중의 하나 이기는 하지만, 이곳의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지시를 듣고 따릅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의 삶과 구도자들과 최근 개종한 사람들의 삶에서 근면과 순종의 결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개종한 한 사람은 몰몬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읽기를 끝마친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5년 12월 31일 저녁 7시 5분이었다.

독자들이 12월 31일 밤에 다 읽었던 그 이전에 다 읽었던, 그 목표를 이룬 것은 그 책의 메시지를 나누려는 신앙과 자신감을 강화시켰다.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읽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데이비드 워커 장로는 그가 추구해 온, 그 책에 대한 새로운 간증을 얻게 되었다. “지금은 제가 간증을 할 때도,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서 재확인시켜 주는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워커 장로는 말했다.

비슷한 반응이 세계 전역의 교회 회원들로부터 왔다. 산타 크루즈 볼리비아 피레이 스테이크 아분단시아 와드 회원인 알테미르 구아나코마 아베 형제는 다시

몰몬경을 읽으라는 힝클리 회장의 권고를 읽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것을 행할 용기를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목표를 성취했으며, 지금 제가 몰몬경을 읽고 있는 동안 제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

실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이 놀라운 책, 우리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티끌에서 나온 이 책이 세상의 구속주의 신성과 실재의 또 하나의 증인으로 서 있기”때문에 온다고 힝클리 회장은 2005년 12월 솔트레이크시티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인 모임에서 말씀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

“이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벨라드 장로가 선교사의 안전에 대해 말씀하다

“이 사업은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에 일어날 일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엠 러셀 벨라드 장로가 2006년 1월 교회 선교사들 52,000명의 안전과 복리에 대해 논하며 말했다.

그 달 초, 세 명의 선교사들이 임지에서 생명을 잃었다. 한 명은 총에 맞아 사망했고, 두 명은 자동차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네 번째 선교사는 총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벨라드 장로는 슬픔에 잠겨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평안이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한 명을 잃으면 온 교회가 슬퍼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은 비극에 대해 그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신권 지도자들에게로 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때때로 폭력과 사고가 발생하지만, 후기 성도 선교사들 중에 그러한 죽음은 극히 드물다고 벨라드 장로는 말했다. “19살부터 21살까지의 젊은이들과 21살의 자매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선교 임지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벨라드 장로는 전세계 343개의 선교



벨라드 장로가 교회는 전세계 343개의 선교부에 있는 52,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의 안전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부에서 그들이 봉사하는 동안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선교사들이 안전하도록 돕는 선교사 조직과 훈련의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재검토했다.

- 개인적인 안전과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에 대한 훈련은 교회의 16개 선교사 훈련원에서 시작하여 선교 사업 중에 선교사 지역 대회와 구역 모임에서 계속된다.
- 선교사들은 항상 짝을 지어 일하며 자신의 동반자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 자격을 갖추고 성숙하며 영감 받은 선교부 회장과 그들의 아내는 선교부 내의 젊은 선교사들을 “그들 자신의 자녀들처럼” 보살핀다.
- 선교부 회장 보조, 지역 지도자 및 구역 지도자들로 구성된 조직은 “우리가 어디에 선교사들을 보낼 것인지 살피고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해 구축된다.”
- 특정 지역과 인근 지역의 안전에 대해 지역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회원들과

- 계속 협의한다. 선교사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지역들은 피하도록 지시한다.
- 차를 사용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자동차 안전에 대한 유의 사항을 제공한다.
- 자전거를 타는 선교사들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 훈련을 실시한다.
- 걸어 다닐 때, 선교사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걷도록 격려한다. 그들에게 소지품을 최대한 줄이고 그날 필요한 만큼의 현금만 몸에 지니도록 지시한다. 도둑을 만나면 선교사들은 저항하지 말고, 대결을 피하며, 가진 돈이 얼마든 모두 포기하도록 훈련한다.
- “선교부 회장들이 자신의 지역 경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의료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80명의 의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전역에서 전

임 선교사로 봉사한다. 또한 200명의 자원 봉사 간호사들과, 의학과 건강 관리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보살피러 그곳에 나가 있다”고 벨라드 장로는 말했다.

- 안전과 청결을 위해 주기적으로 선교사 숙소를 점검한다. 필요할 때마다 선교사들을 다른 숙소로 이사 가게 한다. 벨라드 장로는 그러한 사건들이 구주의 회복된 복음을 나누는 교회의 사업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끝맺었다. “조셉 스미스는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무엇도 이 사업을 멈출 수 없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

박물관, 기록적인 전시회에 작별을 고하다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전시회,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거의 1년 동안의 전시 후 2006년 1월 15일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 기간 동안 박물관은 총 437,787명의 방문객으로 그동안의 1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사람들이 조셉을 보러 오고 싶어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경신되었습니다”라고 전시회 책임자인 마크 스테이커는 말했다.

1월 방문객 수는 총계에 계산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며칠 동안 전시회를 보기 위해 저녁에는 시간당 2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것은 시간당, 일일, 그리고 일 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깼습니다.” 라고 전시회에서 일한 박물관 자원 봉사자인 대럴 존즈는 말했다. “어떤 날은 저녁 6시 30분과 8시 30분 사이에 1,800명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움직임 수조차 없

을 정도였습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7월과 12월이 전시회 기간 중 가장 바쁜 두 달이었다. 7월에는 64,452명의 방문객들이 미국과 세계 전역에서 박물관을 방문했다.

2005년 2월 4일에 개막한 이 전시회는 선지자의 부름을 완수하도록 조셉이 준비되고, 가르침을 받으며, 단련 받는 과정을 보여 준 진품 유물, 문서, 미술품 및 매체 상영물의 전시와 더불어 선지자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했다.

전시회는 처음 기록된 그대로의 경전 계시, 서한, 일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입었던 외투, 그리고 그가 순교시 입고 있었던 조끼의 일부도 전시되었다. 이러한 모든 유물은 복음이 회복된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방문자들이 조셉 스미스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나눌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조셉 스미스 전시회 방문자들이 그 박물관의 참석 기록을 갱신했다.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그들의 간증은 모두 기록되었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 동안 회원들이 나누었던 그에 대한 간증들을 앞으로 올

세대들이 읽을 수 있도록 교회 기록 보관소에 영구 보관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 전시회를 보러 솔트레이크시티에 올 수 없었던 많은 청소년들

에게 그들의 간증이 영구 기록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간증을 써서 보내도록 했습니다.”라고 스테이커 형제는 말했다. 그러한 간증은 그 행사의 기념물로 계속 보존될 것이다.

전시회 설비가 철거되는 도중, 박물관 자원 봉사자인 린다 존슨 자매는 월터 레인의 그림 *마음의 소망(Desires of the Heart)*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기를 바라며 그 그림을 이미 내렸는지 보기 위해 커튼을 걷었다. 그 그림은 거룩한 숲에서 무릎 꿇은 소년 조셉을 묘사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 그림이 내려지는 게 슬프니다.” 라고 존슨 자매는 말했다. 그 그림은 항상 그녀에게 특히 감명 깊게 다가왔다. 스테이커 형제는 전시회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방문자 개개인이 무엇에



1800년대의 이와 같은 의료 기구들이 당시 7살이었던 조셉 스미스의 다리를 수술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이 실시되는 동안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가장 공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것은 조셉이 지상에 있는 동안 행했던 일을 직접 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박물관 내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계속해서 기리는 영구적인 공간이 두 군데 있으며, 이는 교회 회장들 전시관과 물문경의 탄생 전시관이다. ■

아프리카 어린이의 팔에 놓는 주사 한 대

정 치적,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대륙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거의 들어 본 적도 없는 질병인 홍역으로 매년 282,000명의 어린이가 죽었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드모인 핀들리 장로와 조이스 핀들리 자매는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실시된 홍역 퇴치 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부부 선교사로 부름 받을 때까지 이 질병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홍역 퇴치 운

동은 적십자사, 유니세프,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세계 보건 기구 및 그 외 기관들이 후원하는, 아프리카의 2천만 어린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운동이다.

봉사 기간 동안, 핀들리 부부 선교사는 아이보리 코스트 회원들이 수백 명씩이나 그 캠페인을 성공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자원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의료 훈련을 받은 교회 회원들이 예방접종 장소에서 도움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그 캠페인을 장려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집의 문을 두드렸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족과 어린이들을 함께 모으는 일을 도왔다. 심지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 캠페인을 위한 그림을 제출하여 돕기도 했다. 매우 높은 참여에 기여한 성도들은 “그들이 이 특별한 기회를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핑클리 회장에 보여 주기”를 바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 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회적 불안 때문에, 핀들리 부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전임 선교사들은 초기 캠페인을 끝내지 못한 채, 2004년 11월에 대피했다. 캠페인은 그들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돌아간 2005년 8월까지 연기되었다.

핀들리 부부 선교사는 이번에는 그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교회가 기금과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 기관들을 만났다. 교회가 자원 봉사자들을 제공하고,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와 같은 인쇄물을 제작하며, 적십자사에 메가폰, 유니폼 및 건전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홍역 퇴치 운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보건부는 교회의 참여에 대해 열의를 보였으며, 교회의 모든 공헌을 TV를 통해 발표하면서 교회를 캠페인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지명했다.

그때부터 핀들리 부부 선교사는 캠페인 준비를 돕기 시작했다. 10살 된 로슬라인 디케이의 그림이 인쇄물에 게재되기 위해 채택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탄자니아 및 말라위 캠페인에서도 사용되었다. 그 지역 스테이크 회장들의 인도 하에

일하면서, 핀들리 부부는 실무팀으로 지역 복지 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위원회는 아이보리 코스트의 23개 와드와 지부에서 온 자원 봉사자들의 일을 조정했다.

회원 자원 봉사자들의 주요 책임 중 하나는 일반 주민들이 예방접종 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을 아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아침 6시 30분이면 일어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홍역의 위험에 대해 이웃들을 교육시켰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어린이들을 데려오도록 했다. 그들은 종종 시간을 들여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직접 알려 주기도 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예방접종 시설로 데리고 오기도 했다. 전임 선교사들 또한 돕기를 원했으며, 이들은 가방에 캠페인 스티커를 붙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이 예방접종을 받게 하도록 격려했다.

예방접종 시설이 수도 아비장만 해도 보건소, 마을 추장의 집, 그리고 주차장 등과 같은 장소에 수백 개나 설치되었다. 몇몇 시설은 단지 길가에 세워진, 플라스틱 지붕으로 된 작은 건물이다.

예방접종 시설이 수도 아비장만 해도 보건소, 마을 추장의 집, 그리고 주차장 등과 같은 장소에 수백 개나 설치되었다. 몇몇 시설은 단지 길가에 세워진, 플라스틱 지붕으로 된 작은 건물이다.

처음 며칠 동안 사람들이 집단으로 찾아왔다. 어린이들이 줄을 지어 섰으며, 어떤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왔지만 대부분은 혼자서 왔다. 사람들이 정해진 예방접종 시설에 오는 발걸음이 끊기자, 팀들은 의약품을 가지고 현장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접종 받지 않은 어린이들을 찾아 봄비는 시장과 구역을 돌아다녔다.

700명이 넘는 교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아이보리 코스트의 홍역 캠페인은 대 성공을 거두었다. 50퍼센트만 되어도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보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나라에서 봉사자들은 거의 8백만 명



드모안 핀들리 장로와 조이스 핀들리 자매가 홍역 퇴치 캠페인이 성공하도록 도운 많은 자원 봉사자들 중 몇몇과 사진을 찍기 위해 서 있다.

의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목표의 87퍼센트를 달성했다.

회원들이 바친 자원 봉사 시간은 총 40,000시간이었다. 다채로운 배지를 단 회원들을 어디서든 볼 수 있었으며, 그들은 꽤 좋은 평판을 얻고 잘 알려지게 되었다.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의료 구역에서는 회원들만이 유일하게 동원된 자원 봉사자들이었다. 모든 의료 구역은 그들의 도움에 감사를 느꼈고, 향후 캠페인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에 연락해도 좋은지 물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느끼고 보여준 사랑의 정신이었다. 회원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그들의 삶에 찾아온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딕보우 놀레바: “캠페인이 모두 잘 진행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저는 여러 번 주님의 영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살피시며, 그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레이몬드 베다: “자원 봉사자로 봉사하면서 정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마치 선교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느낌이었습니.”

프랭크 드롤드 톱과: “매일 보건부 사람들이 와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것은 지역 사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는 봉사라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진 보소코 쿠아씨: “정말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나가기 전에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전에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던 방법으로 사람들과 말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을 열고 선교 사업과 가정 복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

2006년 6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6월호에 실린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의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8쪽과 9쪽에 있는 “계명을 지킴”을 참조한다.

1. 나의 복음 표준이 우리가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도록 돕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칠판 위에 나의 복음 표준 포스터나 목록을 전시한다.(이번 호의 친4쪽이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내 책자의 뒷표지 참조) 나의 복음 표준에 해당하는 계명이 들어 있는 참조 성구들을 종이 쪽지 위에 쓴다. 아브라함서 3:25, 모사이야서 18:10, 모사이야서 4:10, 출애굽기 20:15~16, 출애굽기 20:7, 출애굽기 20:8, 출애굽기 20:12, 교리와 성약 89, 교리와 성약 42:40~41, 신앙개조 1:13, 교리와 성약 25:12, 요한복음 13:34~35, 교리와 성약 109:12~13. 어린이 한 명에게 종이 쪽지 하나를 선택하여 참조 성구를 읽도록 부탁한다. 모든 어린이들이 그 성구를 찾아보게 한다. 어느 계명이 그 성구에 해당하는지 질문한다. 종이 쪽지를 선택한 어린이가 속한 반의 어린이들에게 그 계명에 해당하는 하나의 표준을 찾게 한다. 다른 반에게 우리가 그 표준에 따라 살 때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묻는다. 시간이 되면 나머지 종이 쪽지를 가지고 반복한다. 순종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축복들에 대해 간증한다.

나이 어린 어린이들을 위한 제언: 나의 복음 표준 중 각각 하나가 쓰여진 종이

쪽지를 대여섯 장 준비한다. 한 어린이에게 바구니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그 표준을 지키는 방법을 몸짓으로 보여 주게 한다. 어린이들 모두가 순종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그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들 또한 몸짓으로 보여 주는 것을 돕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나의 복음 표준이 우리가 옳은 일을 택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2. 어린이들이 충실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찾도록 토론을 이끈다. 나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성구를 찾게 한다. 좀 더 어린 어린이들은 그림의 단서에서 원리를 알아 맞힐 수 있다. “가르쳐진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주어지는 축복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 노래를 한 곡 부른다. 예를 들면, 십일조는 말라기서 3:8~12 또는 초등학교 그림 3-26 (십일조 봉투를 가진 소녀)을 보여 주고 십일조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안식일은 교리와 성약 59:12~19 또는 초등학교 그림 3-25 (교회에 가는 가족)를 보여 주고 안식일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어린이들에게 종이와 크레용을 나눠 준다. 종이를 반으로 접게 한다. 한 쪽에는 오늘 배운 계명 중 하나를 따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다. 다른 쪽에는 약속된 축복 중 하나를 그릴 수 있다. 그림 위에 참조 성구를 적게 한다. 각 어린이들이 그림을 집에 가져가 가정의 밤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붙여 놓도록 장려한다.

3. 노래 발표: “사랑하는 자녀들아”(찬송가 40장). 어린이들에게 춤과 폭풍우

치는 날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정말 추운 상태를 역할극으로 표현한다. “이제 우리는 안으로 들어와 새빨갭게 달아오른 난롯가에 앉아서 부드럽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다”고 말한다. 도우미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 준다. “이러니까 따뜻하고 기분 좋지 않아요?”라고 묻는다. 우리에게는 춤과 폭풍우 치는 날처럼 느껴질 때가 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노래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더 따뜻하고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언제나 주 지키며”라는 부분을 부르고, “이것을 알 때 여러분의 기분이 나아지지 않아요?”라고 묻는다. 어린이들과 함께 그 부분을 노래한다. 여러분이 그 다음 부분을 노래할 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언제 그것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도록 부탁한다. 그 다음 소절을 부르고, 음의 높이를 표시한다. (손을 더 높게 또는 낮게 올려서 각 음표의 음 높이를 표시한다) “언제나 주 지키며.” 반응을 본 후 복습하고 어린이들이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도록 한다. 여러분이 그 노래의 나머지 부분을 부르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맘 주께 맡기면”) 우리가 그분의 축복들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바른 일 힘써 행하면”) 또한 어떤 소절이 반복되는지 (“축복 하리”) 알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듣게 한다. 반응을 보기 위해 각 소절이 끝난 후 잠시 멈춘다. 어린이들이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복습하고 소절 별로 노래 부르는 것을 지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시며 그들을 축복하리라는 것을 간증한다. ■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임순임 자매

2004년 10월 15일. 그날은 저와 제 아들 조성제 형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스러운 약속을 맺기 위해 물로 침례를 받았던 날입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제 마음에 스며들었던 그 파스함. 후에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도 똑같이 찾아 왔던 그 느낌은 세계 있을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약 2년 전의 일로, 잠깐 동안 저희 가족이 미국에 거주했을 때입니다. 미국 유타 주에 있는 UVSC(유타 밸리 주립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일하게 된 남편을 따라 유타 주에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길을 지나는 선교사들을 보기는 했지만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타 주는 주변이 온통 교회 회원들이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 중 허양희 형제님이 계셨는데, 당시 유타 주에 있는 한인 지부의 회장님이셨습니다. 허 형제님은 저희 가족을 자주 집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는 교회에서 열린 노변의 모임에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접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마음에 와 닿았던 것 중 하나는 성직자 없이 회원들의 봉사로 교회가 운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보수로 봉사한다는 회원들의 모습에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어 매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자라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문과 역사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교회가 좋다는 것은 느꼈지만 적극적으로 개종하려는 결심을 하지 않은 채로 아들 성제의 여름 방학을 맞았습니다.

성제가 방학을 하자 저희 가족은 미국 일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드넓은 미대륙을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만남

을 거듭하면서 저는 유타 주에 사는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맑은 영혼을 가진 유타 주 사람들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느꼈고, 너무나 선하고 깨끗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 아들이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로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저는 교회 선조들의 신앙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잘 정리된 도로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옛날에 길도 없는 그 곳을 매서운 추위 속에서 걸었다는 이야기에 저는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타 주에 돌아와 시내에 있는 개척자와 손수레 부대 동상을 보았을 때 절로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며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곳이구나 ...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선교사들과 복음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저는 성경을 읽으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창세기를 넘기는 것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준 물문경이라는 책은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물문경을 읽었을 때 ... 그 느낌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것은 진리다!' 라는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얼마 후에 침례를 받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훌륭한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생활하면 할수록 인생에 대한 표준이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 아들도 복음 안에서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위: 임순임 자매와 조성제 형제 침례식, 왼쪽: 미국 일주 여행 중인 임순임 자매 가족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들

사람 많기로 소문난 서울 신도림 지하철역. 출근길에 걸음을 재촉하던 사람들이 한 번씩 힐끗 눈길을 준 곳은 양복 차림으로, 아니면 긴 치마를 입고 커다란 가방을 메거나 끌면서 모여든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다. 선교부 내 모든 지역에 지하철이 있다는 서울 서 선교부는 이동하는 날이면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모여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인사와 안부를 묻는 영어와 한국어가 지하철역 내를 웅성웅성하게 만든 지 30여 분이 지났을까. 선교사들은 어느새 흩어져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와 사람들과 기적이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떠났다. 이제 신도림 지하철역의 기이한 풍경은 다시 6주 후를 기약하게 되었다. 이번 달에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서울 서 선교부를 소개한다.

링우드 회장이 함께한 서울 서 선교부의 시작, 그리고 지금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링우드 자매와 저는 한국에 돌아와 우리 훌륭한 회원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봉사하는 이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매일 훌륭한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신앙심 깊은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만드는 기적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국 서울 서 선교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1979년 7월 1일, 서울 서 선교부가 설립되던 시기에 저는 서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에프 레이 하킨스 서울 선교부 회장님의 보조(AP)였습니다. 새로운 선교

부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항을 마련하는 하킨스 회장님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장님과 함께 잦던 그 지역에서 지금 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립 당시 지역 범위는 서울 서쪽 지역과 안성, 수원, 청주, 대전을 포함한 일부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관할 지역에 약 1470만 인구가 살았고 교회 회원은 3천여 명이었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지역 경계에 변화가 있었지만 저는 이 지역에서 그간 일어났던 성장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현재 서울 서 선교부는 설립 당시와 거주 인구는 같지만 관할 지역은 작아졌습니다. 인천, 강서, 안양, 서울 남, 수원, 서울 영동 스테이크를 관할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관할 지역 면적이 가장 작은 선교부일 것입니다.

현재 저희 선교부에는 108명의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장로가 90명, 자매 선교사가 14명인데, 한국인 선교사는 단 9명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부에는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세 팀이 있습니다. 선교부 사무실에서 봉사하는 트립 부부와 미군 지방부 담당 선교사인 개먼 부부, 그리고 전임 선교



서울 신도림 지하철 역에서 만난 서울 서 선교부 선교사들

사는 아니지만 복지 선교사로 김용일 장로님과 박재향 자매님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봉사하는 기쁨 중 가장 큰 것은 제가 전임 선교사(1977년~1979년)로 봉사할 때 함께 교회에 참석했던 회원들이 지금도 충실하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봉사할 때 동반자와 저는 어떤 가족을 찾았고, 함께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홍장석 형제님과 그분의 세 자녀들인데, 이들은 1978년에 개종했습니다. 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첫 번째 주에 저는 그 가족 중 가장 어렸던 자녀가 가정을 이루어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저희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나머지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인천에서 봉사할 동안 동반자와 제가 찾았던 개종자들을 통해 현재까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100여 명에 이



개먼 부부(가운데)의 가정의 밤. 이날 봉천 와드와 신림 와드 선교사와 구도자들이 개먼 부부의 가정의 밤에 함께했다. 맨 오른쪽에 미즐리 부부 선교사는 올 7월부터 개먼 부부 선교사 후임으로 서울 서 선교부에서 봉사할 계획이다.

룹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선교 사업은 기적의 사업입니다. 저희는 헌신적인 한국 성도들이 있기에 더 많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한국에 와서 그들이 확인한 하늘의 힘은 바로 미군 지방부 회원들의 기도였다. 은퇴한 전역 군인 출신의 부부 선교사가 오기를 바라는 지방부 회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개먼 부부가 한국으로 온 것이다. 현재 개먼 장로는 지방부 회장단으로, 개먼 자매 선교사는 복음 교리를 가르치는 부름을 수행한다. 이들은 또한 한 달에 두 번씩 영어권 회원들의 성전 방문을 돕고, 구도자와 신회원들을 돕기 위해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일한다. 선교부 내 전임 선교사 숙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개먼 장로는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맛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베풀 줄 아는 한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했을 때 가족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희의 마음을 알기에 저희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충실한 신앙과 참된 간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그 밖의 요인들이 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덧붙었다.

서울 서 선교부 부부 선교사

개먼 부부

서울 서 선교부에서 영원한 동반자와 선교 사업을 하는 세 부부 선교사 중에서 개먼 부부는 매주 가정의 밤에 선교사와 구도자를 초대한다. 한국어로 대화할 수는 없지만 개먼 부부만의 방법으로 사랑과 간증을 전하는 그 가정의 밤은 항상 개먼 자매가 준비한 따뜻한 저녁 식사로 시작한다.

개먼 부부의 가정의 밤

4월 24일 저녁, 개먼 부부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서울 남 스테이크 신림 와드와 봉천 와드에서 온 선교사들과 구도자들이었다. 라자냐와 샐러드가 놓인 저녁 식사에서 시작한 가정의 밤. “구원의 계획”이라는 비디오 시청과 개먼 부부의 짧은 간증. 간단한 순서를 가진 짧은 시

간이었지만 부부의 사려 깊은 마음과 손길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그 마음을 담아 늘 똑 같은 폐회 찬송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며 가정의 밤을 마쳤는데, 이 노래는 부부가 유일하게 한국어로 부를 수 있는 찬송가라고 한다.

부부 선교사로 봉사한다는 것

대개 부부 선교사는 전임 선교사들과 다르게 봉사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도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먼 부부의 경우, 이들은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서 기후가 따뜻한 곳에서 봉사하고 싶었는데 건의하는 지역마다 부부 선교사들이 이미 있어서 소망하는 곳으로 갈 수 없었다. 부부는 차츰 부름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교회 본부로부터 한국에서 봉사하라는 소식을 받았다.



서울 남 스테이크 영어 뮤지컬 “신앙의 발자취” 중

선교 사업에 매료된 사람들 - 부지런한 서울 남 스테이크

영어 뮤지컬

“위드 갓, 에브리씽 이즈 파서블!(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황량한 솔트레이크 계곡. 실망하여 말을 잃은 개척자들에게 브리검 영 회장이 힘 있게 외치자 객석에 앉아 있던 회원들이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바로 서울 남 스테이크에서 열렸던 영어 뮤지컬 “신앙의 발자취” 중 한 장면이다. 이 뮤지컬에 출연한 배우들은 영어 회화반 반원과 복음 토론을 하고 있는 구도자, 새로운 회원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이다. 영어 뮤지컬은 서울 남 스테이크가 벌이는 선교 사업 활동 중 하나다. 회원들이 연출과 스텝을 맡아 봉사하며 이들을 위한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작년부터 매 스테이크 대회에서 구도자와 선교사들의 공연이 상연되었고, 이 공연단은 이제 네 번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이 공연은 올 가을에 열릴 스테이크 대회 토요일 모임에서 만나 보게 될 것이다.

“위대한 스테이크” 만들기

서울 남 스테이크는 “성스러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성도가 됨”이라는 비전으로 모든 지도자와 회원들이 더 넓고 튼튼한 하나

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슬로건이 “위대한 스테이크”이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시온을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계획들은 대부분 선교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다. 허병석 스테이크 회장은 서울 남 스테이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교회 모임이 바로 선교 활동이며 모든 회원이 다 선교사라는 원리에 기초를 둡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지 항상 선교 사업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테이크 대회를 비롯한 스테이크 행사에서는 항상 맨 앞의 네 줄은 구도자와 선교사를 위한 자리로 비워둔다. 각 와드 감독은 회원들과 접견과 협의를 통해 구도자를 소개하도록 권장하고, 전임 선교사들은 6주에 한 번씩은 각 보조 조직 활동에 참석하여 선교사에 대해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 선교 사업을 담당하는 고등평의원으로 두 명의 형제가 봉사하며 영어 뮤지컬, 영어 마을, 선교 전시회, 음악회, 인터넷을 활용한 선교 사업, 선교 사업 관련 소책자 발행 등을 진행한다. 서울 남 스테이크 지도자들과 회원들의 이런 노력은 70%가 넘는 신회원 비율로 확인할 수 있다.

신림 와드의 기적 만들기

신림 와드 회원들은 모두 매일 5분씩

와드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이 만나는 구도자들, 새로운 회원들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도로 간구한다. 그들의 집 벽에는 와드 선교사들이 나눠 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과 그 옆에 비회원 친구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붙여 있다. 매일 경전을 15분 이상 읽는 것도 선교 사업을 위해서이다. 이 숙제들을 내 준 사람들은 와드 선교사들이다. “일요일마다 각 보조조직에 참석할 때 회원들에게 선교 사업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구도자를 소개하도록 와드 선교사들이 권유하고 회원들의 노력을 계속 확인하며 격려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까지 선교책임자로 봉사했던 최선명 형제의 말이다. 성찬식 안내와 침례식 준비, 침례복 준비, 기록, 새로운 회원과 우정 증진, 매달 두 번씩 대리 침례 의식 참석, 선교사 복지 관리 등 와드 선교사들의 활동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관여한다. 회원들의 기도와 와드 선교사들의 부지런함, 선교사들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하늘에 닿았는지 이런 노력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 새로운 회원들이 늘어나고 그들 스스로 친구들을 소개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신림 와드로 모이고 있다. 최선명 형제는 “기적은 엄청난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함께 노력했을 때,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그간의 기쁜 변화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다. 스테이크의 선교 사업 방향과 회원들의 노력이 만나 신림 와드는 작년까지만 해도 40여 명이던 활동 회원이 올 해 4월에는 8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줍니다. 게다가 사심 없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므로써 자신의 삶 또한 향상됩니다.”(고든 비 힝클리,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318쪽) ■

새로워진 선교 사업 도구들

갈수록 바빠지는 세상 속에서 더욱 간박하게 해야 할 선교 사업. 이 사업을 위해 교회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한다.

전도용 카드

선물을 제공하는 카드들

물문경 한 권, 구주의 성역을 담은 '하나님의 어린양' 비디오 또는 우리의 행복한 모토인 '영원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비디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실린 전도용 카드. 이 카드는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하도록 권유하기 전에 구도자들 스스로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한국 관리 본부 배부과에서 100장 단위 포장당 2,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왼쪽부터 물문경,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어린양 전도용 카드.

새로 추가된 전도용 카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전도용 카드에 '행복한 가족이 되는 세 가지 간단한 방법'이라는 소책자를 제공하는 카드가 추가되었다.

새로워진 전도용 카드 구도자 지원 절차

위 네 가지 전도용 카드에는 구도자들이 무료 자료를 문의할 수 있는 무료 전화 번호와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소개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 무료 전화 번호는 각 지역의 선교부 사무실과 연결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배포되는 전도용 카드에는 전국이 하나의 번호로

통일되어 있다. 이 무료 전화 번호는 한국 관리 본부 배부과 전화 번호이다. 근무 시간 외에도 자동 응답 장치를 통해 언제나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배부과는 신청한 주소로 무료 자료를 우편 배송한다. 신청 무료 전화 번호는 080-777-1441이며, 이메일 gift@ldschurch.or.kr로도 신청을 받는다. 교회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도록 준비 중이다.

배부과는 접수된 구도자 자료를 한국 선교사 훈련원 담당자에게 보내게 된다. 이는 각 지역의 선교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무료 자료를 받아 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한국 선교사 훈련원 담당자는 또한 무료 자료를 받은 구도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여 자료를 잘 받았는지, 더 알아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일도 담당한다.

아울러 한국 선교사 훈련원 담당자는 구도자 자료를 구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선교부에 전달한다. 선교부는 해당 지역의 선교사에게 연락하여 구도자와 접촉할 수 있게 한다.

행복한 가족이 되는 세 가지 간단한 방법

새로 나온 소책자 '행복한 가족이 되는



더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위한 제인이 담긴 소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777-1441
이메일 주소 gift@ldschurch.or.kr
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http://www.ldschurch.or.kr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새로 추가된 전도용 카드

세 가지 간단한 방법'은 말 그대로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 해야 할 간단한 방법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냄', '대화를 향상시킴', '가치관을 강조함'까지 세 가지 큰 제목으로 나뉘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구도자와 회원들에게 교회가 추구하는 가족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준다. 이 소책자는 거의 전면에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있다. 이 사진들의 주인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가족끼리 매우 닮았다. 실제로 이들은 이 책의 내용대로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후기 성도 회원들이다. 서울 지역의 회원들 중 여러 가족들이 이 책을 만드는 데 무료 모델이 되어 주었다. 가족의 행복이, 가정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지금 이 시대에 이 얇은 책 한 권이 전해주는 따스함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데려 오는 향기가 될 것이다.



'행복한 가족이 되는 세 가지 간단한 방법' 소책자

너희는 특별하다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이자현 자매



여름비가 스산하게 내리던 작년 8월 10일. 태어나서 그토록 숨죽여 울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그 전에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수영장에서 와드 청남 청년들과 함께 활동 모임을 하던 중 역원으로 참석한 친 오빠가 물에 미끄러져서 머리를 다친 일이 일어났을 때이다. 외상이 없어서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오빠는 계속 통증이 있다고 했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오빠가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빠는 그때 영화에 나오는 10초맨처럼 방금 했던 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에 100번도 넘게 같은 대답을 해 주어야 했다. 오빠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 기도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버지와 병원으로 가서 CT촬영을 할 때에도 나는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했다. 말

그대로 눈물이 복받쳐 올라왔다. 오빠를 잃게 될까봐 너무나 두렵고 불안했다. 주님께 오빠가 적어도 가족은 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교회 안에서 신권 지도자로 봉사 할 수 있게 기억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시라고 부탁드렸고,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전해드렸다. 그렇게 10분이 지났을까? 조금씩 눈물이 멈추어졌다. 얼어있던 가슴이 따스한 햇살에 녹아들 듯 따뜻해졌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곧 이어 그 빈자리에 위로의 영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말로선 표현 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다. 모든 게 잘 되리라는 확신이 내 가슴속에 가득히 차 있었다. 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오빠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렸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주셨다. 나는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주일 이 지난 뒤 오빠는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지금 오빠 이선기 형제는 서울에서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다. 가끔 휴가를 얻어 집에 오는 오빠를 보며 나는 그날을 기억하며 기도의 축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게 된다. 내년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려다 이런 일도 겪어 봤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대, 직장, 학교 등 사회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경험과 간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도움은 여러분의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봉사하는 리아호나 기자들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문: 지혜의 말씀에 얽힌 경험과 그를 통해 얻은 간증
 사진: 본인 사진(증명 사진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 속 현장, 즉 이야기와 관련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권장합니다)
 기한: 8월 25일까지

예수님에 대한 어린이들의 간증, 그 마음을 담은 그림

12월에 실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간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경험

과 순간, 어린이의 간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짧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그린 그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직원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부문: 예수님에 대한 초등학교 어린이의 간증이나 간증을 담은 그림 사진: 본인 사진(증명 사진이 아닌 것)
 기한: 10월 25일까지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leemh@ldschurch.org(이민희)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번호 562)

독신 회원이 되면 지금까지 겪어온 것보다 앞으로 겪을 고난들이 더욱 더 많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주님과 나 사이 유일한 대화의 끈인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안양 스테이크 금천 2와드 정기현 형제



침례 받은 지 1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간증과 가르침들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내게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강한 응답과 간증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항상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은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와드에서 청소년 축제인 “모두 다 사랑하리” 발표 준비를 할 때였다. 우리 와드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모임인데 그 동안 청소년이 많이 없어서 지난 8년 동안 이 모임을 못하다가 우리가 8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거였다. 청소년 장기 자랑과 연극을 준비하는데 솔직히 ‘ 과연 할 수 있을까? ’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진전이 없었다. 발전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이나 청소년 회장단들 모두 실망하고 낙심했었다. 하지만 청남 청년 회장단에서 기도를 권유했고, 우리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주님께 ‘ 우리의 능력을 축복하셔서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라고 간구했다. 그때 마음속에서 따뜻함을 느꼈고 이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연습을 계속해도 우리의 실력은 나아지지 않았다. 발표 당일. 많은 분들이 오셨고, 우리는 잔뜩 긴장했다. 우리는 무대 뒤에서 함께 기도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웠고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났다. 연극을 하면서 대사 한마디 한마디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느꼈다. 연극이 끝나고 와드 회원들은 모두 일어나 말 그대로 기립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연극을 한 우리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똑같이 영을 느꼈다고 나중에 이야기 하셨다. 나는 이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다신 한번 알게 되었다. 기도는 나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이고 영적인 양식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더 온유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내 모습을 스스로 보고 느낀다.

인천 스테이크 답동 와드 최해림 자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 경험 중 나의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은 작년에 새벽 세미나를 시작할 때 일어났다. 학업에 한창 바쁘고 힘들어 하던



어느 날, 새벽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복음을 배우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당시 고3이었던 나에게 단 몇 분의 아침잠은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했다. 걱정이 되었다. 두려움과 의심이 들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마음들을 없애 달라고 기도드렸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새벽 세미나를 통해 내가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 이후로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감당해야 하는 눈꺼풀의 무게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방법이 생겨 나를 도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이 그것보다 큰가

지역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광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 대전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신춘 음악회
- 부산 서 지방부
지방부 대회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 부산 스테이크 대회
부산 종교교육원 졸업식
- 서울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상호부조회 창립기념 행사
- 서울 동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 서울 북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내외 방문
신촌 와드 박기웅 형제 개인전
신촌 와드 만학도 김이환 자매 졸업 기사
- 전주 스테이크
군산 미군 지부 연합 친목 모임
- 안양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 청주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눈이 뜨이고 이불을 걷어 차낸 후 욕실로 곧바로 갈 수 있었다. 성큼성큼 욕실 문으로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은 하나 남게서 나의 의심을 없애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신 것이라 생각했다. 그 이후 힘든 학교 생활 속에서 좌절하는 친구들을 위로할 때 같은 처지인 내가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부도 더 효율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하나남게서 도와 주셨다. 세미나리 교사이신 백봉옥 형제님이 항상 일깨워 주셨던 말 “너

는 특별하다.” 이 말은 이제 나의 간증이 되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9명/해외 2명)



류종하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대전 선교부



전소연 자매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부산 선교부



박대천 장로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부산 선교부



전승철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대전 선교부



박동석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부산 선교부



최정근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풍 와드
대전 선교부



박명화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부산 선교부



안성원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템플스퀘어 선교부



신지은 자매
부산 스테이크
신정 와드
부산 선교부



최은현 장로
서울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뱅크버 선교부



이미숙 자매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서울 선교부

8월의 크리스마스

리아호나 정기 구독자 여러분께 8월의 크리스마스를 선사합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마련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8월호 리아호나와 함께 여러분 가정에 배달됩니다.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회복”, “행복은 어디 있는가” 이 세 가지 영상물이 담긴 DVD입니다. 모든 리아호나 정기 구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이 자료는 8월호부터 신규 구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배부됩니다. 아름다운 영상에 담긴 복음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DVD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Finding Faith in Christ, 54041 320), “회복”(Restoration, 54742 320), “행복은 어디 있는가”(Finding Happiness, 00244 320) 이 세 영상물이 실려 있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구 스테이크

포항 지부 회장: 정외곤(전임: 이종한)

마산 스테이크

남해 지부가 사천 지부로 개칭됨
사천 지부 회장: 도재왕(전임: 도재왕)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감독: 백상봉(전임: 안경일)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감독: 최준영(전임: 이성열)

서울 영동 스테이크

오륜 와드와 잠실 와드가 송파 와드로 통합 개칭됨
송파 와드 감독: 최기동(전임: 송파 와드 최기동, 오륜 와드 김정기)
천호 와드와 하남 지부가 강동 와드로 통합 개칭됨
강동 와드 감독: 최상업(전임: 천호 와드 조학현, 하남 지부 최흥기)